

# 좌절과 실패를 희망으로 시인 이상국의 이야기

글 · 윤승일 nagneyoon@hani.co.kr

시인에게 시를 왜 쓰느냐는 질문은 밥을 왜 먹느냐는 질문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황당한 질문 앞에서 시인은 답을 망설이지 않는다. “아프니까…… 외로우니까”. 1980년대 급격하게 피폐화되는 농촌에서 살아야 했던 농민들의 이야기를 전하던 시인 이상국(63세)을 만났다. 태어나 60년을 넘겨 살면서 단 한 번도 설악산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지 않았던 시인이 밥벌이하는 강원도 백담사 만해마을에서였다.

## 시인의 길은 숙명이다.

아버지처럼 한번 산에 들어가면 나오지 말자 / 다시는 오지 말자 / 나무들처럼 / 중처럼 / 슬퍼도 나오지 말자……. 만해(萬海)도 이 길을 갔겠지 / 어린 님을 보내고 울면서 갔겠지 / 인제 원통쫄의 노래방에서 / 땡초들과 폭탄주를 마시며 / 조선의 노래란 노래는 다 불러 버리고 / 이 길 갔겠지(백담가는 길, 일부)

강원도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가장 궁금했다. 시처럼 산속에서 나오지 않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을 것만 같았다. 답은 시로 돌아왔다. 1972년 강원일보 신춘문예에 시 〈문밖에서〉가 당선되면서 등단한 청춘에도 서울은 동경의 대상이었다. 〈진부령〉은 시인이 두 번에 걸쳐 감행한 서울행과 그 좌절을 담고 있다.

내 스무 살 / 저 지랄 같은 새벽 / 아버지 소 판 돈 몰래 들고 / 서울 가는 디젤버스 기름 냄새에 / 개처럼 헐떡이며 넘던 영 / 그 큰 소 다 털어먹고 / 추석 명절 달 그늘만 밟고 돌아오던 날 / 먼지 낀 차창을 손바닥으로 문지르며 / 면목없는 얼굴을 비취보다가 / 고개말랑 이르면 눈물 나던 영(진부령, 전문)

두 번의 서울행은 끝내 완성되지 못했다. “그루터기 만한 인연이라도 있었더라면……” 시인에게 서울에 비빌 언덕이 없었다. 시인은 수십 년이 지나도록 청춘기 서울행이 좌절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해결하지 못했다. 나이 들어 이름 석 자를 알아주는 이도 꽤 있



지만, 여전히 서울에는 하룻밤 신세 질 수 있는 인연이 없어 지금도 서울 나들이는 당일치기로 끝나고 만다고 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두지 않은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다시 물었다. 왜 시인이 되었느냐고, “다른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시인이 산문과 소설쓰기를 병행하는 것이 유행이 되어도 시인은 오직 시를 고집한다. 돈이 되지 않는 시 쓰기를 외길로 고집하는 것은 숙명을 알기 때문이다. 숙명은 거부하면 족쇄가 되고 받아들이면 훈장이 되는 속성이 있다.

꼴 베고 나무하고 농사짓느라 초등학교를 겨우 마칠 수 있었던 시인의 형은 부지런했지만 여전히 참담할 정도로 가난하다. 부지런을 떨면 떨수록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농촌의 현실은 1980년대를 관통하며 구조화된다. 구조화 한 가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농민들의 모습은 80년대 민주화 과정기에 시와 그림과 소설로 무수히 다루어졌다. 그 시절 시인의 시도 구조화한 처지를 극복할 수 없는 농촌사회의 현실에 분노한다. 농협에서 밥벌이하는 탓에 동료 직원들이 “그런 시를 쓰려면 차라리 직장을 그만두지”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시인의 시선은 농촌을 떠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다른 문학작품과 달리 시인은 선불리 구호를 들고 나서지 않는다.

“그들이 기어코 농사꾼을 죽일 작정이라도 / 젊디젊은 것들이 무장할 때가 아니야 / 지금은 그 가엾은 장관에게 돌맹이질이나 할 때야(지금은 그 가엾은 장관에게 돌맹이질이나 던질 때다, 일부) 정도가 고작이다. 그럼에도 시인의 시가 여느 문학작품보다 더 강한 분노를 갖게 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시인의 말처럼 “천성적으로 타고난 농경다움과 존스러움”이 그 뿌리일 것이다. 시인은 시적 대상을 미화하지 않는다. 시인은 농민들의 이야기를, 아프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신의 것으로 체화할 수 있는 조건을 펼쳐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의 이야기를 자신의 말로 대변함으로써 분노 뒤에 도사린 비겁함과 두려움까지도 결국은 분노에 저항하는 에너지화 하고야 만다.

**현실참여…… 그러나 아직 내릴 별을 만나지 못했다**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들은 시인의 글을 형이 써준 것이라며 믿지 않았다고 했다. 한학에 조예가 있었던 부친 덕에 일찍부터 삼국지나 소동파를 읽을 수 있었고 그를 통해 ‘송문주의’에 젖을 수 있었다. 막연하나마 시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품었다. 여기에 선생님님 탓에 이리저리 전근 다니던 삼촌이 집에 꾸렸던 서재는 책과 글에 젖을 수 있는 환경을 저절로 만들어 주었다. <사상계>에 연재되는 소설이나 시는 따로 떼어내 책을 만들어서 읽고 쓰며 습작을 거쳤다. 신춘문에 당선 이후에도 4년의 독학을 거쳐 1976년 <겨울추상화>를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동해별곡’ (1985)을 시작으로 5권의 시집을 엮어냈다.

5권의 시집에는 어쩔 수 없는 처지인 계급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과 그들의 아들이고 아버지이며 친구일 수밖에 없는 시인의 좌절과 실패 그리고 분노의 뿌리로서 희망이 가득하다.

“우리는 농토 깊숙이 슬픔을 묻고 떠난다 / …… / 따뜻한 땅이 씨앗을 품었음에도 / 빈손 들고 간다 / 녹슨 펌프대 밑에 이 빠진 밭사발 내던지고 / 소리쳐 울며 간다 / 다시는 배고픈 땅에 돌아오지 않으리라 / 온다 해도 쟁기를 잡았던 손에 / 무기를 들고 올 것이다 / (이농, 일부). 땅을 떠나는 이들은 시인에게 우리이며 언젠가는 돌아올, 그러나 더 강하게 성장해 돌아올 희망이다.

시인은 세상에 시인이 많은 이유를 “언어와 사물이, 우주의 모든 현상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유심상 수상 소감)” 라고 말한다. 그래서 시인에게 시는 “아프고 외롭고 배제된 이들을 치유하는 공공재”다. 시의 공공성을 획득하기 위해 “세상에 대해 분노할 줄 알고 그 분노의 실체에 대해 각성 없이는 작가는 존재할 수 없다”고 믿는다.

다니던 농협을 그만두고 시인은 고향의 주간신문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다. “조금씩 조금씩 쌓이는 눈의 무게를 받으며 /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 나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 저 빛나는 自害 / 혹은 아름다운 마감 // 나는 때로 그렇게 /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다(대결, 일부). 세상 밖으로의 외출은 성공하지 못했다. “신발 한 짝 잃어버린 적도 없고 최루탄 가스 한 번 맡아 본적도 없어” 80년대 민주화 과정에 무임승차 한 것 만 같은 미안함에 해직교사 출신의 후배 제안을 받아들여 편집국장을 맡았다. 제대로 된 언론을 통해 지역사회를 바꿔보자는 현실 참여였다. 그러나 지역신문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토양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았다. 신문사 운영은 어려웠다. 글만 쓰면 되는 줄 알았던 편집국장으로 시작한 신문사 생활은 줄지에 발행인까지 떠맡게 되었다. 직원들 월급조차 제대로 줄 수 없는 현실은 끝없이 원칙을 흔들었다.

**사람다움에 대한 그리움이 시인의 힘**

시인을 평하는 어느 글에서 시인의 힘을 “고향에서만 50여 년을 산 그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계속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것은 어쩌면 고향 또는 농촌이란 시인을 비롯한 모든 인간이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곳이기 때문이라는 강한 신념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는 글을 읽었다. 신념이 강한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모든 변화에 긍정한다는 것이다.

“사는 게 늘 쉽지는 않아” 시인은 하루에 두 번 영을 넘는다. 시인의 집은 바닷가 속초에 있고 밥벌이를 하는 일터는 영 넘어 백담사 만해마을이다. 만해마을은 작가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매년 만해축전을 연다.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 여는 토요일문학아카데미 등 창작교실도 시인이 챙겨야 하는 일이다.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해마을의 일은 시인의 또 다른 현실참여다. 시인에게는 좌절을 희망으로 전환하는 재주가 있어 매일 영을 넘고 고단한 일은 자신을 버리는 기회로 삼는다.

“하루에 두 번씩 영을 넘으며 산천과 자연을 들여다보는 일은 구질구질한 나이 든 시인이 되지 않기 위해 좀 더 치열해지기 위해 노력”을 모아 시인은 지난 5월 시를 발표했다. 시 <틈>은 용산참사를 바라보는 시인의 시선이 어떠한지를 알게 한다. 시인은 자신의 시가 그 시선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를 보여주었다. ‘시 한 행이 절 한 채보다 무겁




다 는 것을 알면서도 시인은 시 쓰기를 멈추지 않는다.

시인의 다섯 번째 시집 『어느 농사꾼의 별에서』 후기에 “시는 재미로 만나거나 어울려 즐겨야 좋은데 그것에다 내 존재와 세계를 다 싣고 자 하니 서로 힘들다. 그러나 그 일마저 없었더라면 무엇으로 이 세상을 건넬까 생각하면 시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고맙다.” 라고 적었다. 시인의 겸손이 지구만큼이나 무겁다.

## 틈

### 이상국

바위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나무는  
한겨울에 뿌리를 얼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바위에 틈을 낸다고 한다  
바위도 물을 받아주거나  
살을 파고드는 아픔을 견디며  
몸을 내주었던 것이다  
치열한 삶이다  
아름다운 생이다  
나는 지난 겨울 한 무리의 철거민들이  
용산에 언 뿌리를 내리려다가  
불에 타 죽는 걸 보았다  
바위도 나무에게 틈을 내주는데  
사람은 사람에게 틈을 내주지 않는다  
틈. 

글 윤승일 | 자유기고가로 활동하며 현재 <한겨레21> 기획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